

“佛心 잡아라” 불교계도 대선바람

‘대선용 모임’ 속속 발족... 줄서기·갈등 조장 등 우려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난립하는 등 벌써부터 선거 거리가 뜨겁다. 여야 예비 대선 후보들의 불교계 공들이기도 일찌감치 시작되고 있다.

여야 각 정당의 불교 공약이 거세지면서 최근 불교계에도 ‘대선용’ 모임이 속속 발족하고 있다.

범어권에서는 7월 19일 오후 3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불교미래포럼(공동 창립준비위원장 배영진, 임동주) 창립발족회를 연다.

‘불교미래포럼’은 △총책 포럼 개최 △종교문화정책 연구 △대선공약 마련 및 정책 개발연구위원회 구성 △인재양성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 연구소 설립 등의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조직은 자문위원으로 종진 스님 및 사회각계인사들을 위주로 50인, 공동대표 10인 이내로 하고, 16개 지역포럼도 구성할 계획이다.

정몽경 준비단장은 “범어권 대선 주자들에게 불교의 정책 문제를 알리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창립취지를 밝혔다. 한나라당 중앙위 불교분과위원회(위원장 심담)는 7월 13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한나라당 전국불교연합’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불심(佛心) 잡기’에 나섰다.



각 정당의 대선용 불교모임이 속속 발족하고 있다. 사진은 한나라당 전국불교연합 발대식 모습. 사진=박재원 기자

원장 심담)는 7월 13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한나라당 전국불교연합’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불심(佛心) 잡기’에 나섰다.

전국불교연합은 범종단 차원에서

출·재가 불자를 회원으로 영입해 전국 조직을 구성하고, 경선을 통해 선출되는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 지지를 보낸다는 방침이다.

전국불교연합에는 해전(광주 마하연 주지) 영공(부산 태종사 조실) 도현(한미사 조실) 장산(불교뉴라

이트 상임대표) 스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심담 스님은 “불교의 권익 옹호를 위해 정치계에 뛰어들었다”며 “2007년 대선 필승에 불교신자의 단합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과 조계종중앙신

도회도 대선과 내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교 정책을 제시하기 위한 ‘불교정책기획단(공동단장 승원·김응철)’을 6월 26일 발족했다. 불교관계법과 문화·문화재정책·환경·남북불교문화교류 등 다방면에 걸친 불교 관련 정책에 대한 불교계의 정리된 입장을 제안하겠다는 뜻에서다. 기획단은 오는 9월까지 불교 관련 정책을 분야별로 논의한 뒤, 이를 대선 후보에 전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들 단체가 불교계 권익 옹호를 내세우지만 자칫 특정후보나 특정사안에 대한 ‘줄서기’나 갈등조장이 되지는 않느냐는 우려다.

정천구(영산대 정치학부) 교수는 “요즘은 옛날 왕조시대와 다르게 국민의 요구를 수렴해야 하는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불교가 어떻게든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불교의 정치참여는 큰 틀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선에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즉 불교이념의 강력한 사회전과 운동을 통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碧巖錄

역자 석지현
강의내용 벽암백의 삼매배교가치·암기방법 등
일시 7월 19일(목) 오후 7시
장소 출판문화회관강당(서울시강남동 02)735-2701
대상 150명 선착순(예약접수자 우선)
수강료 1인 1만원
접수방법 전화로 예약(02-2004-8233) 후 계좌 입금
(국민은행 038-25-0008-365, 예금주:에이(비엔엠))
시행사 예약자선착순 100명 불서 1권 증정
주최 현대불교신문사(buddhanews.com)

신정아 교수 박사학위 ‘가짜’

동국대 학사지원본부장 “사기혐의 고소할 수도”

동국대 신정아(여·35) 조교수의 예일대 박사학위가 가짜로 밝혀져 교계는 물론 학계와 미술계 등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상일 동국대 학사지원본부장은 7월 12일 동국대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신 교수의 예일대 미술사학과 박사학위 위조 논란과 관련해 예일대에 확인 결과 리처드 레빈 총장 명의의 ‘신 교수의 예일대 미술사학 박사학위가 허위이며, 신 교수는 예일대 학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답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앞으로 진상조사를 통해 95년 신 교수의 채용 당시 해당 관련자들을 조사한 뒤 과실이 드러나면 징계 조치할 것”이라며 “신 교수를 업무 방해와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 교수 채용 당시인 2005년 9월 동국대가 예일대 측으로부터 팩스로 전해받은 서류도 가짜임이 밝혀졌다.

7월 13일자 조선일보는 “팩스를 이메일로 보내고 진위확인 요청결과 예일대 대외협력처 길라 라인스틴씨는 이 서류는 예일대의 학력확인서 양식과 다른 가짜 서류”라며 “팩스에 서명이

돼 있는 파벨라 서마스터 교수는 부재중이었지만 그녀의 조교와 확인한 결과 파벨라 교수는 이 편지에 서명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연합뉴스는 11일 “신 교수가 졸업했다는 미국 캔자스대와 캔자스주립대에 따르면 이 두 대학에서 학사, 석사, 혹은 박사학위를 받고 졸업한 학생 중 신씨와 이름이 같은 인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도하며 사실상 최종 학력이 고졸임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 광주비엔날레측은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신 교수의 예술감독 선임을 취소하고 “18일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현재 공동감독인 오쿠이 엔위저(Enwezor·미국) 1인 체제로 갈 것인지 새 한국인 감독을 뽑을 것인지 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교수의 학력위조 의혹이 2005년 임용 당시와 올해 초 등 수 차례에 걸쳐 동국대내에서 제기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학교측이 오래 전에 의혹을 알고 있었음에도 검증할 의지가 없었거나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보이차 紅茶園
진년보이차 · 진품자사호 직수입
02-744-3311
www.hongdawn.com

마음 행길 명상법
선무도
선호흡/선채조/선요기/선기공/선무술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잘 살피고, 정화하여 몸과 마음이 활짝 열린 건강한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선무도 서울지점
02) 763-2980
종로, 서초, 강남, 송파, 마포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 취급업무 : 민사 · 형사 · 가사 · 행정
전 화 031)387-5400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010-7504-4521 (강영화 변호사)
017-535-068 (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 (김택선 변호사)
경기도 안성시 용인구 권영동 1597 한양도립 206호(대흥동 역도 5분)

I Love Buddha / 수행은 잘 안되는 것
용정운(www.zentoon.com)

현대건축과 고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드립니다

귀의 삼보하옵니다.
평건은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개념 건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는다면 뒤쳐지게 됩니다. 이에 평건은 현대건축과 고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불교도량(道場)도 변화해야 합니다. 즉 수천년 전통의 미를 살리면서 현대에도 어우러 지는 멋스러운 도량 말입니다. 저희 불자들에게는 물론이고 불교성향을 가지신 일반인들이 와서 보고 편안히 공부할 수 있는 도량이야말로 불법홍포의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스님, 불자님 향후 우리 후손들에게도 진정한 미의 건축 발전의 역사를 물려 주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시공분야
고건축 [사찰건축] | 현대건축 | 인테리어 | 건축 및 불사 건설링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교동 70-10 신교빌딩 4층 110-032
TEL 02)722-0094 / FAX 02)741-0096
http://pyeonggeon.com E-mail : pg@pyeonggeon.com

construction & design
PYEONGKEON